

##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김 혜 원

원 성 두

김 은 정<sup>†</sup>

제주해바라기센터  
임상심리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노표현양식이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거절민감성 질문지,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총 335명의 자료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는 분노표현양식 또는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는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노조절은 3유형의 대인관계문제 모두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거절민감성,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문제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한국임상심리학회의 2013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E-mail : kej@ajou.ac.kr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특히 대학 생 시기는 성인 초기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다(Erickson, 1968). 하지만 대인관계란 매우 복잡해서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권석만, 1997).

대인관계문제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권석만, 1997).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임상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구체적인 주 호소는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 및 학업상의 문제들도 배후에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정남운, 2001; 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따라서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조윤경, 2003).

Horney(2006)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경증적인 방어로서 세 가지 패턴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moving toward people) 순종적인 패턴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호감을 유지하고자 과도하게 애쓰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맞서는(moving against people) 공격적인 태도로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며 보복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특성을 보인다.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moving away from people) 고립적인 태도로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부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려 한다. 조영주와 윤정설(2019)은 이 이론에 따라 대인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하위 분류로 나누어 보다 간명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이유미, 정주리, 2020; 정소현, 양난미, 2018). 본 연구에서도 Horney(2006)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고립형’, ‘순종형’, ‘공격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다양한 신경증적 반응을 유발하여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배척과 거부경험으로 알려져 있다(이홍표, 2014).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수용 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동기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하지만 거부경험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의 한 부분으로 대학생들은 학교, 가정, 친구 관계 등에서 거절이나 배척을 필히 경험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거절에 대해 더 고통스러워하며,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자존감이 저하되거나 사회불안 및 우울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는 등 심각하고 다양한 신경증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Ayduk, Downey, & Kim, 2001; Downey, Freitas, Michealis, & Khouri, 1998; Gailliot & Baumeister, 2007).

거부에 대한 개인적 반응 차이는 거절 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으로 불리는 인지적-정서 처리 성향(cognitive-affective processing disposition)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Downey & Feldman, 1996). 거절민감성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거부당할까 봐 불안해하고, 사소하

고 모호한 단서도 거부로 지각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사회불안과는 다르다(Downey & Feldman, 1996). Mischel과 Shoda(1995)의 인지-정서적 체계 이론에 따른 연구에 의하면 거부를 당했을 때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거부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 대한 거부를 예상하여 과잉 반응할 준비를 하게 된다(Ayduk, Downey, Tesa, Yen, & Shoda, 1999; Downey & Feldman, 1996). 따라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거부의 의미가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거절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기 힘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Ayduk et al., 1999; Ayduk et al., 2000). Downey, Lebolt 등(1998)은 거절민감성을 가진 아이들이 더욱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며 일상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불만족스러움은 이차적인 임상증상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좀 더 살펴보면 높은 거절민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방어적,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예를 들어 국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여성이 적대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Downey & Feldman, 1996; Downey, Freitas, et al., 1998), 남성의 신체적 폭력이 거절민감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Downey et al., 2000), 또한 실험 연구는 거절민감성이 낮은 사람보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이 연인의 잠재적인 거부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냄을 밝혔다(Ayduk et al., 1999; Ayduk et al., 2009). Dodge와 Somberg

(1987)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중립적인 상황이나 단서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로 귀인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거절민감성 수준이 높을 경우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이희경 등, 2014).

한편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예방하고 수용 받으려는 목적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Ayduk et al., 2009),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되는 등 의존성을 더욱 많이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Impett et al., 2005). Romero-Canyas 등(2010)은 네 번에 걸친 실험연구에서 거절에 예민한 사람들과 기질적으로 거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절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순응한다는 가정을 검증했다. 이들은 거절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수용 또는 재수용을 받기 위해서 상냥하고 순응적이며 아부하는 행동을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높은 거절민감성은 자기 침묵, 사회적 회피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결과를 볼 때(Ayduk, et al., 1999; 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2000; Downey, Freitas, et al., 1998), 이러한 방어적인 반응은 결국 억제되고 회피적인 대인관계문제로 연결되어 개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안녕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Ayduk et al., 2001; Downey, Freitas, et al., 1998).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유형별로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절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순종형, 고립형, 공격형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이유미, 정주리, 2020; 정소현, 양난미, 2018). 또한 대인관계문제의 8가지 하위척도와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안선경, 정여주, 2016; 우희정, 박경, 2014). 그러나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 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떠한 경로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인관계문제에 거절민감성이 기여하는지에 관해 밝힌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거절에 취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상황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Zimmer-Gembeck, Nesdale, Webb, Khatibi와 Downey(2016)는 거절위협에 대한 귀인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한 결과 거절민감성이 높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는 이들은 거절위협시 철수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타인을 비난할 경우 관계적인 공격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절민감성이 ‘인지-정서적 처리성향’이라는 점을 볼 때, 거절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되어 이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며(이민선, 노안영, 2018), 대인관계문제 역시 높아지게 된다는 결과가 있다(안선경, 정여주, 2016). 이에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과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대인관계패턴이 상이할 것이며, 이를 적응적으로 다룰 때는 대인

관계문제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 예상될 때 예기불안, 예기분노, 예기우울을 느끼게 된다(Ayduk et al., 2003; Levy et al., 2001). 특히 분노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 중 하나이며, 흔히 분노의 대상이 되는 상대는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로 거절민감성과 함께 대인관계 맥락에서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Averill, 1983). Downey와 Lebolt 등(1998)은 거절상황을 가정했을 때 아동들이 불안과 함께 분노반응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을 지각했을 때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Ayduk et al., 2008).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축되며, 동일한 상황이라도 좌절과 분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Papps & O'Carroll, 1998). 이와 관련하여 손은경과 민하영(2011)은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적인 상황 혹은 거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거부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분노사고를 자동적으로 보일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의 거절민감성은 분노의 인지적 과정인 분노반추 및 역기능적인 분노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김유영, 이희경, 2020; 김진선, 2017).

분노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어떻게 경험하고 드러내는가에 따라 개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천현, 2004). 즉 분노 경험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느냐가 대인관계와 나아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Spielberg, Krasner와 Solomon(1988)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분노표현양식이라 칭하고, 이를 분노억제, 분노표출 그리고 분노조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분노억제는 분노경험 반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삭이려 하는 분노표현양식에 해당하며,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 경험을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 외부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표현양식을 일컫는다. 분노조절은 상황과 문제해결에 적절하게 조절된 분노표현양식을 의미한다(이경순, 김교현, 2000). 즉 개인의 내적 조절능력을 반영하여 분노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분노표현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적응적인 면이 있지만, 분노가 역기능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결국 대인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Baumeister & Exline, 2000).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사회적 지원을 스스로 박탈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영건, 안창일, 2003). 김광수(2003)는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들이 비행 및 학교부적응 행동이 가장 높고, 분노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과도한 분노표출은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며 심각하게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Baumeister & Exline, 2000; Schiraldi & Kerr,

2002).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반영하며(Lemay, Overall, & Clark, 2012), 분노반추로 인해 증폭된 분노감정은 외부로 표출될수록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한다(손규영, 박은영, 2020). 천현(2004)은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치게 자기주장성을 드러내거나 타인을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으며, 타인비난 및 보복사고를 통해 지배적인 대인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김일중, 권석만, 2017; 최임정, 심혜숙, 2010; Harburg et al., 1979). 연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인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분노를 더 쉽게 표출하며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워한다고 밝혔다(서경현, 이경순, 2002;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et al., 1999).

수용이나 친밀감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바라며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된 분노표현방식의 예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순응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남들이 보기에는 화가 났는데도 아닌 척하는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보여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영건, 안창일, 2003). 분노를 억제하는 유형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Gross & John, 2003). Harburg, Blakelock과 Roeper(1979)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분노억제의 경우 낮은 주장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의 대인관계문제를 밝힌 한 연구는 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이 대인관계에서

냉정, 사회적 회피, 비주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국내외 연구에서도 데이트 관계에서 분노를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상대에게 순응하고 의존하는 습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서경현, 2008; Charkow, & Nelson, 2000). 이처럼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성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며 고립되는 패턴으로 이어지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거절민감성과 분노표현양식이 각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거절민감성 수준이 높더라도 거절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는데 분노표현양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적응적인 분노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가 감소할 것이며,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많이 사용할 경우 대인관계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특정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여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한

가설은 다음과 같고, 그림 1에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 1.**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는 분노표현양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1-1.** 분노조절은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1-2.** 분노표출은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1-3.** 분노억제는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 분노억제는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기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335부의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61명(48.1%), 여성 174명(5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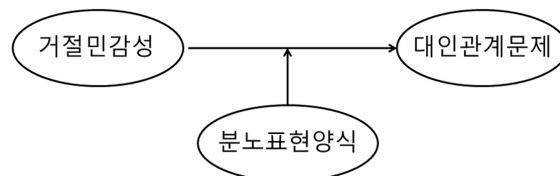


그림 1. 거절민감성,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 측정도구

### 거절민감성 질문지(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절민감성 질문지를 이복동(2000)이 번안,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거절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 초기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응답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일어날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정도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6점 척도로 표시한다. 거절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거절에 대한 기대 점수의 역산점수와 불안 염려 점수의 곱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신뢰도 계수는 .83,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3 이었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현주(2007)의 연구에서는 .84 의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었고,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64, 불안염려 .90, 거절기대 .84이었다.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STAXI-K)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 Control)의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특성분노를 제외한 3개 척도의 하위 문항,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경구 등(1997)의 연구에서

분노표출의 내적 합치도는 .73이었고, 분노억제는 .78, 분노조절은 .79였다. 약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각각 .71, .67,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0이었으며, 분노표출은 .81, 분노억제는 .75, 분노조절은 .80이었다.

###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홍상황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5문항씩 총 4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주와 윤정설(2019)의 연구와 같이 Horney(2006)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속성에 따라 ‘고립형(냉담, 사회적 억제)’, ‘순종형(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공격형(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9-.84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7-.90의 범위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Process Macro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에는 거절민감성이, 조절 변수에는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종속 변수에는 대인관계문제(고립형, 순종형, 공격형)가 투입된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거절민감성과 각각의 대인관계문제에 따른 각각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총 12번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평균중심화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유의성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10,000개로 설정하였다. 셋째,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의 어떤 구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존슨-나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탐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 결 과

거절민감성 및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거절민감성은 모든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분노표출은 자기중심성,  $r = .12, p < .05$ , 과순응성,  $r = .17, p < .01$ , 자기희생,  $r = .17, p < .01$ , 통제지배,  $r = .47, p < .01$ , 및 과관여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1, p < .01$ .

분노억제는 모든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냉담,  $r = .43, p < .01$ , 사회적 억제,  $r = .51, p < .01$ , 비주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9, p < .01$ . 분노조절은 자기중심성,  $r = -.20, p < .01$ , 과순응성,  $r = -.17, p < .01$ , 과관여,  $r = -.24, p < .01$ , 통제지배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0, p < .01$ . 한편 전체 대인관계문제는 거절민감성,  $r = .41, p < .01$ , 분노표출,  $r = .23, p < .01$ , 분노억제,  $r = .57, p < .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23, p < .01$ .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분노표현양식이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model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되었듯이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의 상호작용항이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했고,  $B = -.04, p < .01$ ,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Delta R^2 = .02, p < .001$ . 따라서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절민감성과 분노억제의 상호작용항 및 거절민감성과 분노조절의 상호작용항은 대인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상호작용항으



표 1. 거절민감성 및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2	.12*	-													
3	.31**	.15**	-												
4	-.11*	-.55**	-.04	-											
5	.41**	.23**	.57**	-.23**	-										
6	.25**	-.01	.43**	-.07	.72**	-									
7	.29**	.12*	.25**	-.20**	.60**	.62**	-								
8	.24**	.04	.51**	-.07	.77**	.78**	.49**	-							
9	.35**	-.07	.49**	-.02	.73**	.62**	.34**	.69**	-						
10	.33**	.17**	.39**	-.17**	.69**	.29**	.21**	.37**	.55**	-					
11	.18**	.17**	.32**	-.06	.47**	-.01	-.10	.10	.24**	.60**	-				
12	.17**	.47**	.13*	-.40**	.41**	.06	.30**	.09	-.10	.14**	.19**	-			
13	.16**	.41**	.18**	-.24**	.42**	-.05	.07	.03	.00	.23**	.39**	.59**	-		
14	.26**	.02	.50**	-.07	.79**	.94**	.59**	.94**	.69**	.35**	.05	.08	-.01	-	
15	.37**	.10	.51**	-.10	.80**	.40**	.21**	.51**	.78**	.88**	.73**	.08	.24**	.49**	-
16	.28**	.45**	.26**	-.38**	.65**	.28**	.61**	.28**	.11**	.27**	.22**	.84**	.76**	.30**	.24**

주. 1. 거절민감성 2. 분노표출 3. 분노억제 4. 분노조절 5. 대인관계문제 6. 냉담 7. 자기중심성 8. 사회적 억제 9. 비주장성 10. 과순응성 11. 자기희생 12. 통제지배 13. 파관여 14. 고립형 15. 순종형 16. 공격형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F	R <sup>2</sup>	ΔR <sup>2</sup>
				LL	UL			
거절민감성(A)	0.06	0.01	8.21***	0.05	0.08	32.06	0.23	0.23***
분노표출(B)	0.16	0.04	3.87***	0.08	0.24			
A x B	-0.04	0.01	-3.14**	-0.07	-0.02	9.83	0.25	0.02***
거절민감성(A)	0.06	0.01	7.95***	0.05	0.08	28.77	0.21	0.21***
분노억제(B)	-0.18	0.05	-3.72***	-0.27	-0.08			
A x B	0.02	0.02	1.42	-0.01	0.06	2.01	0.21	0.00
거절민감성(A)	0.06	0.01	7.95***	0.05	0.08	28.76	0.21	0.21***
분노조절(B)	-0.18	0.05	-3.72***	-0.27	-0.08			
A x B	0.02	0.02	1.42	-0.01	0.06	2.01	0.21	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분노표출	Effect	S.E.	t	p	95% CI	
					LL	UL
-1.12	0.11	0.02	6.15	0.00	0.08	0.15
-0.98	0.11	0.02	6.43	0.00	0.07	0.14
-0.84	0.10	0.01	6.76	0.00	0.07	0.13
-0.70	0.09	0.01	7.13	0.00	0.07	0.12
-0.57	0.09	0.01	7.55	0.00	0.07	0.11
-0.43	0.08	0.01	7.98	0.00	0.06	0.10
-0.29	0.08	0.01	8.35	0.00	0.06	0.09
-0.15	0.07	0.01	8.52	0.00	0.05	0.09
-0.02	0.06	0.01	8.27	0.00	0.05	0.08
0.12	0.06	0.01	7.49	0.00	0.04	0.07
0.26	0.05	0.01	6.30	0.00	0.04	0.07
0.40	0.05	0.01	5.01	0.00	0.03	0.06
0.53	0.04	0.01	3.83	0.00	0.02	0.06
0.67	0.03	0.01	2.85	0.00	0.01	0.06
0.81	0.03	0.01	2.05	0.04	0.00	0.05
0.82	0.03	0.01	1.97	0.05	0.00	0.05

주. LLCL, ULCL = 조절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및 상한값.

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분노표출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존슨-나이만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표 3). 평균중심화된 분노표출의 점수가 0.82 이하인 경우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 점수가 0.82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4). 분노표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분노표출의 수준이  $+1SD$ 일 때,  $B = .04, t = 3.83, p < .001$ , 평균수준일 때,  $B = .06, t = 8.21, p < .001$ ,  $-1SD$ 일 때,  $B = .09, t = 7.64, p < .0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표

표 4.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낮음(-1SD)	0.09	0.01	7.64***	0.06	0.11
보통(M)	0.06	0.01	8.21***	0.05	0.08
높음(+1SD)	0.04	0.01	3.83***	0.02	0.06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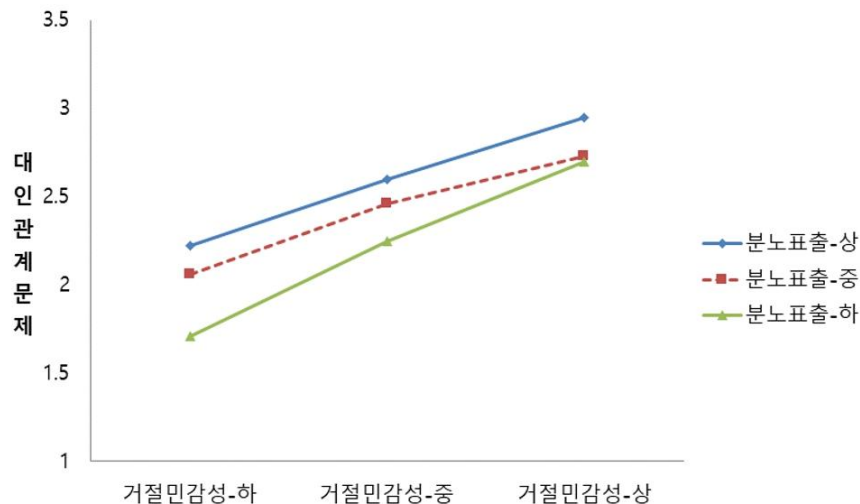


그림 2.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조절효과

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2).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분노표현양식이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되었듯이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  $B = -.08, p < .01$ , 거절민감성과 분노억제,  $B = -.06, p < .05$ 의 상호작용항이 고립형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했고,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Delta R^2 = .02, p < .001, \Delta R^2 = .01, p < .05$ . 따라서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조건부효과 탐

색을 위해 존슨-나이만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표 6, 표 7). 추가적으로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8). 그 결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1SD 수준인 경우에는 거절민감성이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출의 수준이 평균 및 -1SD인 경우와,  $B = .08, t = 5.21, p < .001, B = .12, t = 5.59, p < .001$ , 분노억제의 수준이 평균 및 -1SD일 경우에는,  $B = .04, t = 2.85, p < .01, B = .07, t = 3.44, p < .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고립형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를 각각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 4). 그림 4의 경우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거절민감성 수준이 높으면서 분노억제 수준이 낮

표 5.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F	R <sup>2</sup>	ΔR <sup>2</sup>
				LL	UL			
거절민감성(A)	0.08	0.01	5.25***	0.05	0.10	11.18	0.09	0.09***
분노표출(B)	-0.02	0.08	-0.29	-0.18	0.13			
A x B	-0.08	0.03	-2.97**	-0.13	-0.03			
거절민감성(A)	0.04	0.01	2.85**	0.01	0.07	41.81	0.28	0.28***
분노억제(B)	0.64	0.08	8.50***	0.50	0.79			
A x B	-0.06	0.03	-2.49*	-0.11	-0.01			
거절민감성(A)	0.07	0.02	4.96***	0.04	0.10	9.41	0.08	0.08***
분노조절(B)	-0.06	0.09	-0.71	-0.24	0.11			
A x B	0.06	0.03	1.78	-0.01	0.12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검증 결과

분노표출	Effect	S.E.	t	p	95% CI	
					LL	UL
-1.12	0.16	0.04	4.76	0.00	0.10	0.23
-0.98	0.15	0.03	4.92	0.00	0.09	0.22
-0.84	0.14	0.03	5.09	0.00	0.09	0.20
-0.70	0.13	0.03	5.29	0.00	0.08	0.18
-0.57	0.12	0.02	5.49	0.00	0.08	0.16
-0.43	0.11	0.02	5.67	0.00	0.07	0.15
-0.29	0.10	0.02	5.78	0.00	0.07	0.13
-0.15	0.09	0.02	5.70	0.00	0.06	0.12
-0.02	0.08	0.02	5.32	0.00	0.05	0.11
0.12	0.07	0.01	4.57	0.00	0.04	0.10
0.26	0.06	0.02	3.60	0.00	0.03	0.09
0.40	0.04	0.02	2.61	0.01	0.01	0.08
0.50	0.04	0.02	1.97	0.05	0.00	0.07

주. LLCL, ULCL = 조절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및 상한값.

표 7.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검증 결과

분노억제	Effect	S.E.	t	p	95% CI	
					LL	UL
-1.47	0.13	0.04	3.12	0.00	0.05	0.21
-1.33	0.12	0.04	3.17	0.00	0.05	0.20
-1.18	0.11	0.04	3.21	0.00	0.04	0.18
-1.04	0.10	0.03	3.26	0.00	0.04	0.17
-0.89	0.10	0.03	3.32	0.00	0.04	0.15
-0.75	0.09	0.03	3.37	0.00	0.04	0.14
-0.61	0.08	0.02	3.42	0.00	0.03	0.12
-0.46	0.07	0.02	3.45	0.00	0.03	0.11
-0.32	0.06	0.02	3.42	0.00	0.03	0.09
-0.18	0.05	0.02	3.28	0.00	0.02	0.08
-0.03	0.04	0.01	2.95	0.00	0.01	0.07
0.11	0.03	0.01	2.39	0.02	0.01	0.06
0.20	0.03	0.01	1.97	0.05	0.00	0.05

주. LLCL, ULCL = 조절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및 상한값.

표 8.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Effect	S.E.	t	LL	UL	Effect	S.E.	t	LL	UL
낮음(-1SD)	0.12	0.02	5.59***	0.07	0.16	0.07	0.02	3.44**	0.03	0.11
보통(M)	0.08	0.01	5.21***	0.05	0.10	0.04	0.01	2.85**	0.01	0.07
높음(+1SD)	0.04	0.02	1.88	0.00	0.07	0.01	0.02	0.36	-0.03	0.04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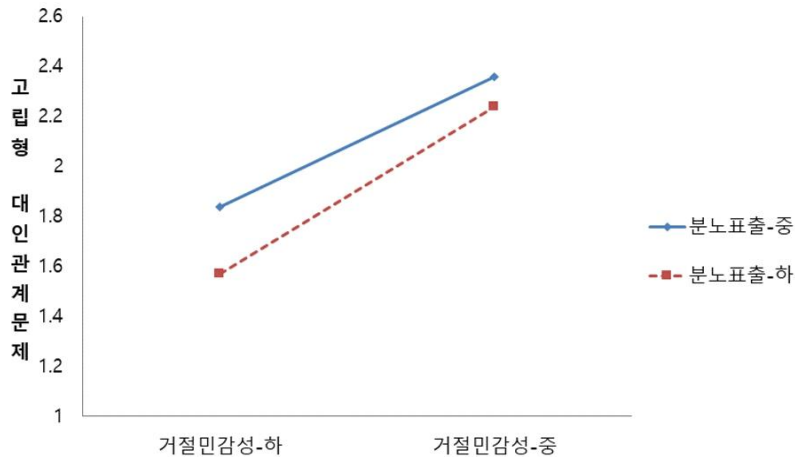


그림 3.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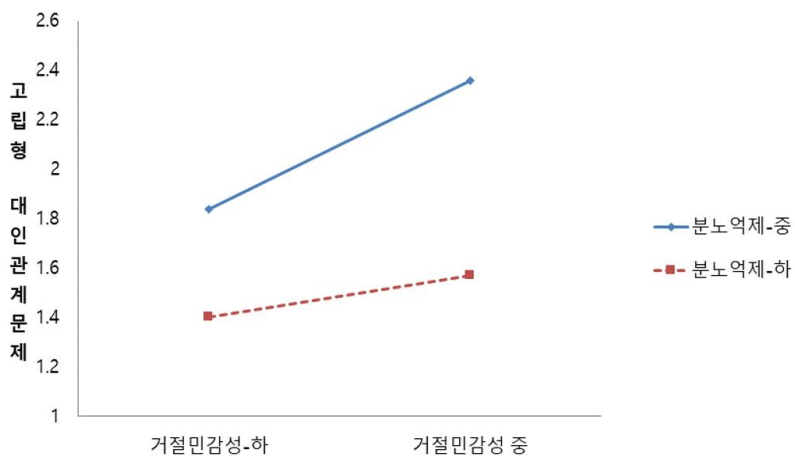


그림 4.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조절효과

은 집단이 확인되지 않아 거절민감성 하, 거절민감성 중 집단에 대해서만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분노표현양식이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제시되었듯이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의 상호작용항이 공격형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했고,  $B = -.04, p < .05$ ,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Delta R^2 = .01, p < .05$ . 따라서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존슨-나이만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표 10). 추가적으로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거절민감성과 분노표출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11). 분노표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분노표출의 수준이 +1SD일 때,  $B = .02, t = 2.05, p < .05$ , 평균일 때,  $B = .04, t = 5.22, p < .001$ , -1SD일 때,  $B = .06, t = 5.20, p < .0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공격형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5).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분노표현양식이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2

표 9.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F	R <sup>2</sup>	ΔR <sup>2</sup>
				LL	UL			
거절민감성(A)	0.04	0.01	5.22***	0.03	0.06	41.16	0.27	0.27***
분노표출(B)	0.38	0.04	8.94***	0.30	0.47			
A x B	-0.04	0.02	-2.50*	-0.07	-0.01	6.26	0.28	0.01*
거절민감성(A)	0.04	0.01	4.23***	0.02	0.06	14.18	0.11	0.11***
분노억제(B)	0.16	0.05	3.15**	0.06	0.26			
A x B	-0.01	0.02	-0.74	-0.05	0.02	0.55	0.11	0.00
거절민감성(A)	0.04	0.01	5.04***	0.03	0.06	28.32	0.20	0.20***
분노조절(B)	-0.36	0.05	-6.97***	-0.46	-0.26			
A x B	0.02	0.02	1.07	-0.02	0.06	1.13	0.20	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0.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검증 결과

분노표출	Effect	S.E.	t	p	95% CI	
					LL	UL
-1.12	0.08	0.02	4.35	0.00	0.05	0.12
-0.98	0.08	0.02	4.51	0.00	0.04	0.11
-0.84	0.07	0.02	4.70	0.00	0.04	0.10
-0.70	0.07	0.01	4.92	0.00	0.04	0.09
-0.57	0.06	0.01	5.15	0.00	0.04	0.09
-0.43	0.06	0.01	5.37	0.00	0.04	0.08
-0.29	0.05	0.01	5.54	0.00	0.03	0.07
-0.15	0.05	0.01	5.55	0.00	0.03	0.06
-0.02	0.04	0.01	5.27	0.00	0.03	0.06
0.12	0.04	0.01	4.64	0.00	0.02	0.05
0.26	0.03	0.01	3.78	0.00	0.02	0.05
0.40	0.03	0.01	2.87	0.00	0.01	0.05
0.53	0.02	0.01	2.06	0.04	0.00	0.04
0.55	0.02	0.01	1.97	0.05	0.00	0.04

주. LLCL, ULCL = 조절효과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및 상한값.

표 11.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낮음(-1SD)	0.06	0.01	5.20***	0.04	0.08
보통(M)	0.04	0.01	5.22***	0.03	0.06
높음(+1SD)	0.02	0.01	2.05*	0.00	0.04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제시되었듯이 거절민감성과 각각의 분노표현양식의 상호작용항은 순종형 대인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

라서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성차를 검증해 보았지만, 남성과 여성 표본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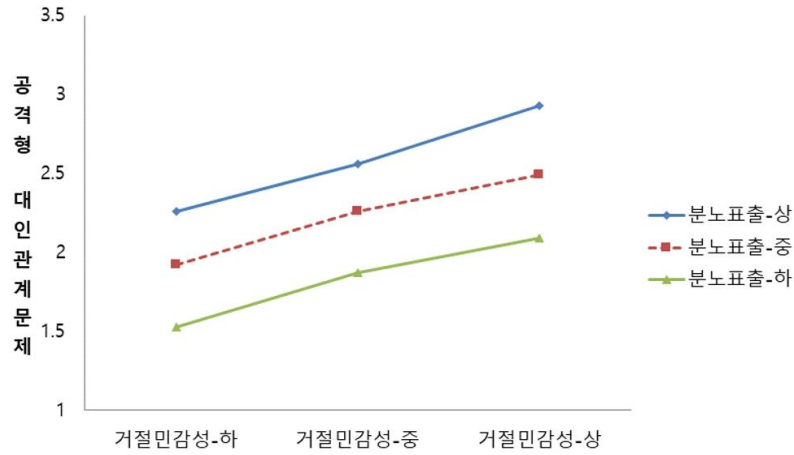


그림 5.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조절효과

표 12.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F	R <sup>2</sup>	ΔR <sup>2</sup>
				LL	UL			
거절민감성(A)	0.08	0.01	7.15***	0.06	0.10	18.42	0.14	0.14***
분노표출(B)	0.06	0.06	1.04	-0.05	0.17			
A x B	-0.03	0.02	-1.49	-0.07	0.01			
거절민감성(A)	0.04	0.01	4.34***	0.02	0.06	50.60	0.31	0.31***
분노억제(B)	0.52	0.06	9.31***	0.41	0.63			
A x B	0.03	0.02	1.87	0.00	0.07			
거절민감성(A)	0.08	0.01	7.00***	0.05	0.10	17.73	0.14	0.14***
분노조절(B)	-0.08	0.07	-1.17	-0.21	0.05			
A x B	0.01	0.02	0.31	-0.04	0.05			

\*  $p < .05$ , \*\*  $p < .01$ , \*\*\*  $p < .001$ .

나타내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거절민감성과 분

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분노표현양식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인관계문제를 고립형, 순종형, 공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

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절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거절민감성은 전체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에 대해 각각 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이는 거절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타인의 거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수록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김나영(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Downey 등(2000)이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침묵 및 사회적 회피, 애정의 철회와 같은 수동-회피적 대처전략으로 표현되면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분노조절은 전체 대인관계문제 및 각 하위유형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체 대인관계문제 및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주효과를 보였다. 이는 분노조절이 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써 거절민감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절민감성과 분노조절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거절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위협성이 증가하는 등 분노조절이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노표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분노표출은 부적 조절효과를 보였다. 또한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의 하

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표출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거절민감성과 공격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거절민감성과 순종형의 관계에서는 분노표출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노표출이 순종형에 미치는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표출의 수준에 따라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며, 그림 2, 그림 3, 그림 5를 보면 분노표출이 중간수준일 때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노표출이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부적 영향을 나타낸 최임정과 심혜숙(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분노를 표출할 때 고립형 및 공격형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경우 거절민감성이 높은 집단에서 분노표출 수준이 낮을 때보다 중간수준일 때 고립형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분노표출이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사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다. 이는 거절민감성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분노표출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분노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거절민감성과 고립형 대인관계문

제 사이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그림 4를 보면 분노억제 수준이 중간수준인 집단의 경우에는 거절민감성이 높으면 거절민감성이 낮은 경우보다 고립형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지만, 분노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거절민감성에 따른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민감성에 비해 분노억제가 고립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분노억제와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인 냉담, 사회적 역제의 상관이 높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고유경(2007)의 연구에서 분노억제가 높은 사람은 비사회성이 높고 회피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억제가 순종형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거절민감성과 순종형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거절민감성과 분노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분노표현양식 중 분노억제가 거절민감성과 상관없이 순종형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노억제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인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종합해보자면 본 연구는 분노표현양식이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대인관계문제를 조절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낮은 수준의 분노표출에 대한 개입이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

로 사용하는 분노표현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거절민감성은 분노표현양식 하위요인 가운데 분노억제와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고 방어하게 되는데(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절민감성의 주요한 예측변인이라는 점에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분노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압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선경과 정여주(2016)는 거절민감성이 높으면 거절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기표현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Pennebaker와 Hoover(1985)는 정서표현 자체보다는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국내에서도 정서표현과 관련된 갈등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김진영, 고영진, 2010; 송준현, 백용매, 2018; 장정주, 김정모, 2008).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지만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박상혁 등, 2011), 대인관계문제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분노표현의 욕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오히려 표현을 억제하는 경우 대인관계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김소화 등, 2019). 박은영과 이주일(2018)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표현했을 때 개인차원에서는 문제해결의 기회를 얻게 되며 관계차원에서는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내에서 분노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조와 협동을 끌어낼 수

있으며(Van Kleef, De Dreu, & Manstead, 2004), 구성원의 창의성이 증진되고(이슬기, 장재운, 2014), 분노표출의 표적이 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다(Averill, 1983; Fischer & Roseman, 2007). 소수의 결과이긴 하지만 분노표출의 결과가 부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며, 말이나 표정, 행동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거절민감성이라는 취약성을 지닌 경우 분노표출이 감정을 해소하고 대인갈등을 해결하는 적응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탐색해 보자면 각 변인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분노조절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던바, 개인의 분노표현양식이 명확하게 3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노표현양식이 다양할 수 있으며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라는 정서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Frydenberg, 1997)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표현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 역시 다양할 것이다. 이에 특정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 한 가지 이상의 분노표현양식이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등 개인의 분노표현양식 패턴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접근이 쉽지 않은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분노표현양식이라는 외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접근이 용이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대인관계문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노표현양식과 함께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거절민감성이 높게 나타날 경우 분노표출의 적응적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거절에 민감한 사람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료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으므로 다른 연령이나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자기보고식 연구 방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각 척도의 문항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의 측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과 분노표

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거절민감성 및 분노표현양식의 하위변인들과 여러 가지 적응 지표 간에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접근으로 거절민감성과 분노표현양식이 사회적 기술, 공감적 표현과 같은 적응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살펴본 분노표현양식은 분노라는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성분노의 수준에 따라 분노표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분노반추와 같은 인지적 요인들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거절민감성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거절민감성 성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후속 연구로 많이 대두되었지만, 분노 이면에 깔린 자신의 인지-정서적 처리성향을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영건, 안창일 (2003). MMPI와 로샤검사를 이용한 분노의 억압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207-228.
- 고윤경 (2007).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1997).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절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61-176.
- 김소화, 광성유, 남윤아 (2019). 정서표현양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2-332.
- 김유영, 이희경 (2020).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251-274.
- 김일중, 권석만 (2017). 이차적 분노사고와 대인관계 문제 및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22.
- 김진선 (2017).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김진영, 고영건 (2010). 분노 억압의 역설과 분노 억제 비밀. *인간연구*, (19), 155-196.
-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77-92.
- 박은영, 이주일 (2018). 조직 장면에서 분노표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3), 767-794.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21-39.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 손규영, 박은영 (2020).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의도적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스트레스 연구*, 28(4), 179-187.
- 손은경, 민하영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17.
- 송준현, 백용매 (2018).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공격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1-25.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13-227
- 안선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우희정, 박 경 (2014).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6-286.
- 이경순, 김교현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 이민선, 노안영 (2018). 대학생의 거절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절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슬기, 장재운 (2014). 상사의 분노표출이 창의 과정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2), 339-366.
- 이유미, 정주리 (2020). 성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1(1), 101-124.
- 이홍표 (2014). 신경증 외래 환자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및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24.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소현, 양난미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 정현주 (2007). 자아존중감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지킬 앤 하이드를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주, 윤정설 (2019).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 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20(5), 199-215.
-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천현 (2004). 남자고등학생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Averi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Downey, G., Tes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high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O., Gyurak, A., & Lue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umeister, R. F., & Exline, J. J. (2000). Self-control, morality, and human streng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29-4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Carnell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27-140.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1), 17-28
- Dodge & Somberg.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1), 213-224.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ealis, B., & Khouri, H. (1998). The self 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Do rejection sensitivity women get rejected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hon, C., & Freitas, A.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2-1089.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15(3), 337-350.
- Eric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iley
- Fischer, A. H., & Roseman. I. J. (2007).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1), 103-115.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and Victims*, 14(4), 365-380.
- Frydenberg, E. (1997). *Adolescent Coping: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ailliot, M. T., & Baumeister, R. F. (2007). Self-esteem, belongingness, and worldview validation: Does belongingness exert a unique influence upon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2), 327-345.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rburg, E., Blakelock, E. H., & Roeper, P. J. (1979). Resentful and reflective coping with arbitrary authority and blood pressure: Detroit. *Psychosomatic Medicine*, 41(3), 189-20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orney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Our inner conflicts*]. (이희경, 윤 인, 이해리, 조한익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ilbert, Villaseñor & Valerie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Impett, E. A., Peplau, L. A., & Gables, S. L.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Lemay, E. P., Overall, N. C., & Clark, M. S. (2012). Experiences an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hurt feelings and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6), 982-1006.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s.),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Reconceptualizing situations, dispositions,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2), 246-268.
- Papps, B., & O' Caroll, R.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6), 421-438.
- Pennebaker J. W., Hoover C. W. (1986) *Inhibition and Cognition*. In: Davidson R. J., Schwartz G. E., Shapiro D. (eds) *Consciousness and Self-Regulation* (pp.107-136). Springer, Boston, MA.
- Romero-Canyas, R., Downey, G., Reddy, K. S., Rodriguez, S., Cavanaugh, T. J., & Pelayo, R. (2010). Paying to Belong: When Does Rejection Trigger Ingra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802-823.
- Schiraldi, G. R., & Kerr M. H. (2002). *The anger management sourcebook*. New York, NY: McGraw Hill Professional.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203-222). New York, NY: Springer Verlag.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 1069.
- Van Kleef, G. A., De Dreu, C. K., & Manstead, A. S. (2004). The interpersonal effects of anger and happiness on negotiation behavior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1), 57-76.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원고접수일 : 2021. 06.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9. 10.  
게재결정일 : 2021. 10. 13.

##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Moderating roles of anger-expression mode

**Hye Won Kim**

Jeju-sunflower center

**Sung-Doo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ger-expression mode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335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asked to complete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TAXI-K), and the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KIIP-SC). The results of Process Macro analysis indicated that anger-expression mode moderated the impa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Specifically, anger-out and anger-i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solation type interpersonal problems. In addition, anger-ou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ggression type interpersonal problems. However, anger-expression mode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obedience type interpersonal problems. Additionally, anger-control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three type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interpersonal problems, anger-expression mode